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1월 21일(주일) 제1181호



성도들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40일 새벽기도회

### 1월 22일부터 캠퍼스별 새벽기도회 계속 진행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어제(20일)까지 이어진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는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29개 해외비전교회, 기도처, 선교지 등지에 흩어져 있는 온누리 가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참여했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주별 주제에 따라 말씀이 선포됐다. 주별 주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처럼’이었다. 메시지는 이재훈 담임목사, 박종길 목사, 이상준 목사, 이기원 목사,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김영길 장로, 정민영 선교사, 한정국 선교사

등이 전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그리스도처럼 변화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받은 은혜도 풍성했다.

유재은 성도(찬양사역공동체)는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해를 보낼 것을 다짐했다”고 했고, 심혜식 권사(양천공동체)는 “이번 40일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봉사로로 섬긴 이들이 받은 은혜도 남달랐다. 최성원 성도(서빙고 주차사역팀)는 40일 동안 주차봉사를 하면서 받은 은혜를 시로 표현했다. “어둠을 지나 교회로 가는 길은 줄

거운 길. 인적이 드문 그 길은 주님과 속삭이는 길. 새벽길은 밤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길.”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끝났지만 새벽기도회는 계속 이어진다. 서빙고와 양재 새벽기도회는 1부 5시 20분, 2부 6시 30분에 진행된다. 부천, 수원, 남양주, 평택, 양지 5시 20분, 대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25분, 토요일 6시, 인천 5시 30분, 강동 6시 20분에 시작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베나야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 림프성 종양수술 받고 회복 중

스리랑카에서 온 베나야(14세)가 지난 1월 12일 온누리교회와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의 후원으로 림프성 종양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스리랑카 온누리국제학교 9학년인 베나야의 병은 림프성 종양이다. 종양이 눈 안에 난 희귀한 경우이다.

베나야의 안타까운 사정을 피터 권 선교사(스리랑카 온누리국제학교 교

장)가 강남B공동체에 알렸고, 강남B공동체 소속 의사의 도움으로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과 연결돼 수술을 받았다. 4월 초까지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처음에는 치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었다. 수술로도 종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고, 출혈 위험이 크며, 수술을 하더라도 시력을 잃을 가능

성이 있어서 의사들조차도 확신을 할 수 없었다. 다행히 수술을 무사히 마쳤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피터 권 선교사는 “베나야의 상태는 재발 가능성이 높고, 몇 번 더 수술 받아야 할 지도 모른다”면서 “경과가 좋아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덧붙여 “베나야를 간병해 줄 봉사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02-794-1063

### 서빙고 우선주차증 신규 발급

#### 장애인, 노약자, 다자녀, 영유아 동반, 임산부 차량

오늘(21일)부터 서빙고 온누리교회 우선주차증을 신규 발급한다. 대상자는 새로 발급된 우선주차증을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우선주차증은 장애인(장애인증 소지), 노약자(70세 이상), 다자녀(3명 이상), 36개월 미만 유아동반, 임산부(산모수첩 소지) 차량에게만 발급된다.

교회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장애인, 노약자, 다자녀, 36개월 미만 유아동반, 임산부 순으로 입차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대상자가 동승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주차증이 붙어 있어도 우선주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문의: 02-3215-3266

# People

만나고 싶습니다

가수 공휘와 개그우먼 정지민(SNS공동체)은 결혼 3년차 신혼부부다. 결혼하니까 정말 매일 매일이 행복하고 기쁘단다. 사랑스런 아들 유민이를 낳은 뒤로는 기쁨도 세배, 행복도 세배 더 커졌다고 한다. 그들 부부가 이토록 행복한 이유는 삶이 윤택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 부부가 그토록 행복한 비결이 무엇일까?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좋아요”

가수 공휘, 개그우먼 정지민 부부가 노래하는 행복



공휘, 정지민 부부와 아들 공유민.

결혼을 결정하는데 망설임은 없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수 공휘와 개그우먼 정지민은 연애 11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고, 이듬해 아들 유민이를 낳았다.

주변에서 “뭐 그렇게 서두르냐”, “애는 좀 천천히 낳아라”는 만류도 많았다. 그도 그럴 것이 형편이 마냥 여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누구보다 행복한 자신이 있었다.

### 그 남자와 그 여자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처음 만난 곳은 ‘엘라인’이라는 기독교사역팀이었다. 가수 공휘는 찬양, 개그우먼 정지민은 MC로 사역을 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때는 남편한테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노래하는 동생 정도였어요. 거기다 남편이 다른 사역팀으로 옮기는 바람에 얼굴 볼 일도 별로 없었고요.”

그들은 연예인이라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없었다. 친해질 계기도 없었다. 그러니 둘이 부부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해 있었어요. 그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병문안을 왔는데 누나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병문안 안

오냐고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왜 가라고 답장을 보내더라고요.’

어찌나 둘이 밥 먹을 기회가 생겼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분명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였는데 아니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아야 될 것 같았는데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만나서 밥도 먹고 차 마시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별로 관심 없는 남자였는데 매일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자주 만나다보니 서로 닮은 점이 또 하나 있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다

### 혹독한 시련과 아픔에서 벗어나다

개그우먼 정지민은 개그맨 시험에 여섯 번이나 떨어지고 일곱 번째 도전에서 KBS 공채 개그우먼이 됐다. 말 그대로 6전 7기다. 그때는 개그맨 시험에만 합격하면 고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 동기들은 잘나가는 데 자신만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몹시 힘들었다. 어느새 그녀의 동기 신보라, 김영희, 김기리 등은 인기 개그맨으로 우뚝 서 있었다. 동기들이 개그콘서트 코너회의를 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커피 타고 청소를 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른다.

“동기들과 비교하는 삶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정신과를 찾아 갈까 고민하기도 했어요. 하루는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데 개그우먼 신보라가 제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 지민이를 위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주더라고요. 그 순간 교회 생각이 났어요.”

그러고 보니 그녀를 위해 기도해준 사람이 또 있었다. 그녀가 개그맨 공채시험을 준비할 때 개그우먼 김경아가 그녀를 위해 기도해줬다. 김경아 덕분에 교회도 다니게 됐다. 이후로 집 앞에 있는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드리고 출근을 했다.

“하나님이 항상 저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으니 무슨 일을 해도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행복하니까 일도 잘됐어요. ‘후궁전’이라는 코너에 출연했는데 큰 인기를 얻었거든요.”

가수 공휘는 방송사 3사에서 실시한 오디션에서 우수한 실력과 가수다. 20살 때 노래실력 하나 믿고 상경을 했는데 일이 풀리지 않았다. 기획사에 들어갔는데 사기나 다름없었다. 나이트클럽 공연 오디션을 보게 했다. 그러다 기획사를 나오고 뮤지컬에 진출했다.

“그 뮤지컬 주인공이 저랑 동갑이었어요. 엄청 부러웠어요. 저도 얼른 주연 자리 꿰차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정말 독하게 살았다. 그랬더니 그 노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었다. 뮤지컬 만드는 회사 대표가 함께 살면서 성경공부를 하라고 제안했다. 그 당시에는 대표의 제안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대표는 이단에 빠져 있었다.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발을 빼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대표의 집에서 감금당하다시피 살았다. 정말 지옥 같았다. 그 충격으로 자살시도를 7번이나 했고, 정신질환도 앓았다. 절망 끝에서 한 목회자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극적으로 살아났다.

“남들을 밟고 일어서서 성공해야 한다는 제 생각이 욕심이었어요. 심신을 회복하고 봉사 활동을 하던 중에 아내를 만났어요.”

### “부부라서 행복해요”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저와 비슷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청년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 했는데 남편이 딱 그 사람이었던 거죠. 함께 세례까지 받았어요.”

“함께만 있어도 늘 행복하고 재미있었어요. 제가 농담을 자주하는데 아내는 제가 쿡하면 짹하면서 받아줬어요.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아무데도 도망 못 가게 관람차 꼭대기에서 프리포즈를 했어요.”

가수 공휘와 개그우먼 정지민은 2016년 4월 30일 부부가 됐다.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서두른 것도 아니고, 살 집이 마련돼서 결혼을 한 것도 아니다. 그냥 좋았다.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다.

“결혼하니까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서로의 가정에 선교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양가 부모님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세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교회가자고 하면 꿈쩍도 안하시는데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왔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서로의 부족한 점도 채워 줄 수 있고, 사역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제가 흔들릴 때는 아내가 신앙으로 붙잡아 주고, 아내가 흔들릴 때면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여자 간증, 그 남자 찬양’이라는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더러쇼(The Love)’라는 토크콘서트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하시는 일을 나누는 것뿐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있어요.”

부부라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다. 부부의 간증을 담은 CCM 앨범 나의 주님(My Lord), ‘나의 노래(My Song)’를 발매하기도 했다. 아들 유민이를 임신했을 때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며 얼마나 좋은 태교를 했는지 모른다.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하니 아들 유민이도 건강하고 행복하다. 앞으로 부부는 유민이만 건강하게만 자리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물론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도 안 힘들겠어요. 아이 돌보는 게 힘들 때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남들과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부족한 것은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들 부부는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많은 청년들이 여유 있을 때 결혼하고 출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여유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기거든요. 하나보다는 둘이 좋고, 둘보다는 셋이 좋아요.”



##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습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훈아홀 명보다 회개하는 한 명을 천사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어야 할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13-14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제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산, 직업, 성별, 나이와 관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국가에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제한없는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받지 않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고, 분명하고, 간단한 구원을 왜 사람들이 받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님이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구원은 아주 간단하지만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경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 받고

그런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요 1:12).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경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논리적이거나 모두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

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늘 성경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15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나라에서 대사를 파견해서 정부의 이야기를 대신 전하게 하는 것처럼 선교도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인 교회는 당연히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들에게 가야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막 16:15-16).

여러분, 주님이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심판에서 구원받을 인생은 없습니다. 그 심판은 두려웁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심판을 받는 것은 멸망이고,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을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합니다. 이때 성경님의 권능과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경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 예수님의 꿈 그리고 복음 전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꿈

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의 꿈이 있다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로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꿈은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복음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 선교는 축복입니다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15절).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갔다가 낯선 문화와 환경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교가 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다른 하늘의 기쁨이 있고,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축복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사명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에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신년  
기획

2018년 우리가 해야 할 일 3. 일대일 제자양육

#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주인공 만든다

일대일 제자양육 ... 신앙성장과 삶의 변화 이끄는 과정  
동반자반 5만 5천 7백, 양육자반 2만 8천 7백 명 수료

2018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명이다. 그 세 번째 사명은 '일대일 제자양육'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12가정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온누리교회의 핵심 양육 프로그램이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평신도가 평신도를 양육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 올해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수료하는 기념비적인 해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 편집자 주

잘 알다시피 '일대일 제자양육(이하 일대일)'과 '큐티'는 온누리교회 양육의 핵심이다. 온누리교회 양육 프로그램의 양대 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누구도 일대일 제자양육과 큐티가 온누리교회의 핵심 양육 프로그램이라는 데에는 이견을 달지 않는다.

특히 일대일 제자양육은 평신도가 평신도를 양육하는 온누리교회의 간판 프로그램이다. 온누리교회의 부흥과 성장, 성숙의 중심에는 늘 일대일 제자양육이 있었다. 그만큼 역사도 깊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온누리교회 창립 이전부터 시작됐다. 12가정 시절이던 1986년 9월 28일부터 주일 성경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도 일대일 제자양육이 포함되어 있었다.

1986년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반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약 5만 5천 7백여 명이 수료했다.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 12만 7천 만 명인데 그중에서 약 44%가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수료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반 수료자는 2만 8천 7백여 명이다. 그 중에서 실제 일대일 제자양육자로 활동한 비율은 1~2회 9,250명, 3~5회 5,578명, 6~9회 1,736명, 10회 이상 1,284명이나 된다.

## 영적인 부모와 자식관계

일대일 제자양육은 16주 동안 동반자(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밟고 있는 성도와 양육자(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수료한 성도)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고, 성경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어떤 이들은 단순한 성경 공부 아니냐고 묻기도 하지만 결코 아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단순히 성경지식을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성경공부를 통한 신앙성장과 더불어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독특한 과정이다.故하용조 목사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영적인 부모와 자식관계'라고까지 표현했다.

"양육은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생은 정보를 주고 가르

치지만 부모는 자식을 생명을 걸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부모이고 양육자입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이 시대에 더욱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과 치유, 성장과 성숙을 소망하며 교회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삶을 나누고, 깊이 있는 교제를 제공하는 일대일 제자양육보다 좋은 선물은 없다. 또한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들은 낯설고 어색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등 수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들을 누군가 올바르게 양육하고, 돕고, 섬겨야 한다. 그 역할을 가장 탁월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일대일 제자양육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비단 초신자들에게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한 성도들 스스로 믿음과 신앙을 돌아켜보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대일 제자양육은 신앙의 틀을 점검하고, 잘 훈련된 양육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는 최고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 일대일로 세계로!

일대일 제자양육은 온누리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다. '일대일 대외사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일대일 대외사역은 1997년 온누리사역축제(OMC)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홍보한 일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일대일 대외사역팀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일대일 제자양육을 알리고, 보급하고, 정착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했다. 주로 미자립 교회나 성도 수가 300명 미만인 작은 교회가 대상이었다. 현재까지 국내 교회 379곳, 2,300여 명, 해외 18개 지역 260여 명이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수료했다. 선교지에도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전수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를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보급했다. 2000선교 본부는 번역된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를 선교지 상황에 맞춰 선교하고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이 또 하나의 선교도구로



온누리교회 초기의 일대일 제자양육(위)과 현재의 일대일 제자양육 모습(아래).

각광받고 있다.

외국어 능력을 활용한 '외국어 일대일사역자 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일대일위원회는 외국인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실시했지만 의사소통 문제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았다. 동반자와 양육자의 언어가 달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어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할 수 있는 양육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오랜 준비와 노력 끝에 2014년 9월부터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일대일 사역자 학교가 문을 열었다.

시작부터 반응이 뜨거웠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일대일 제자양육 하는데 활용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줄지어 외국어 일대일사역자 학교에 지원했다. 현재 운영 중인 외국어 말고 다른 나라 언어를 활용한 일대일 제자양

육 사역자 학교를 개설해달라는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최숙경 권사(서초A공동체)는 외국어 일대일사역자 학교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의사인 남편이 외국으로 의료선교를 나가면 자신은 그 옆에서 영어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겠다는 것이 최 권사의 새로운 꿈이다. 최 권사는 일대일 제자양육이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하고 지난 15년 동안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21명을 양육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최 권사가 일대일 제자양육에 이렇게 애정을 쏟는 이유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다.

"저는 이웃 종교를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

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전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고, 성경 내용도 그려지더라고요.”

최 권사는 아직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

다고 했다.

“신앙생활 하다보면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감정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 그 때 그 사람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일대일 제자양육은 동반자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도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이거든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 삼고 말씀을 가르치셨다. 일대일로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셨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디모데, 디도, 누가 등을 양육했다. 그렇게 성장한 제자들이 각지로 흩어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 일대일 제자양육

을 통해 변화된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주인공을 만든다. 올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 일대일 제자양육이 꼭 필요한 이유

###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 훈련되고 성숙한 리더 필요



이기훈 목사  
(일대일사역 담당)

온누리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면 ‘큐티’와 일대일 제자양육, 그리고 순모임이 온

누리교회의 DNA라는 사실에 이견을 달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큐티와 일대일 제자양육은 30년이 넘도록 대내외적으로 온누리교회의 대표적인 영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개척초기부터 수많은 성도들이 원근각처에서 물려와서 양적으로 급성장했다.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새신자들도 있었지만 기성교회에서 채우지 못한 영적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싶어 하는 열망을 가득 품고 찾아왔다. 그런 성도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은 부담이 아니라 감동이었고, 즐거움이었으며, 신앙생활의 꽃이었다. 예배당과 커피숍 등지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는 모습은 본인들은 물론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것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온누리교회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제자 삼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의 열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다. 한 사람이 변했더니 가정도 변하고, 직장생활도 달라졌다.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했다.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재현되는 상황이 계속 되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게까지 전해지기 시작했다. 지금도 훌륭하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 예수 잘 믿고, 신앙성숙 훈련

그러나 오늘날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일

대일 제자양육을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물론 새가족 만남의 잔치에서 온누리교회에 온 소감을 발표하는 새신자들 중에는 솔직히 부담으로 시작한 일대일 제자양육이 너무 훌륭한 훈련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대일 제자양육이 언제부터가 물이 포도주가 된 비밀을 몰려온 하인들만 아는 것처럼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그 열매와 위력을 아는 과정이 되어가고 있다.

올해에는 일대일 제자양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의 필요성과 영적 유익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대일 제자양육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도록 훈련한다.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구원을 얻었지만 확신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한 많다. 그래서 이단의 밥이 되는 사람이 많다.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엡 2:8, 골 1:14).

둘째, 일대일 제자양육은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신앙의 토대를 세워준다. 신앙생활은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 받아야 한다. 영적 성장은 기초가 잘 세워져야 가능하다.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영적 성숙 또한 불가능하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 뿐만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고도 소화를 시킬 줄 아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뼈대를 세워주는 훈련이다(골 1:28, 엡 4:13-14).

셋째, 일대일 제자양육은 교회에서 성숙한 교인으로 생활하도록 훈련한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신앙공동체이다. 교인들은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 생활해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교회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방주역할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데 관계 때문에 혹은 봉사하다가 상처를

주고받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교인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책임을 다하면서 교회생활을 성숙하게 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롬 10:2-3, 엡 4:11-12).

#### 복음전파 하고, 제자 삼는 사역

넷째, 일대일 제자양육은 세상 속에서 건 강한 신앙인으로 살도록 훈련한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도 잘해야 하지만 교회 밖에서 더 잘해야 한다. 신앙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신앙인답게 살아야 한다.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와 가치관을 따라 일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다. 만약 세상 풍습과 방법을 따라 살면 빛을 잃은 전구가 되고 말 것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성경적인 삶의 방법 즉,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으로, 자기 뜻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방법을 훈련해서(마 5:16, 엡 5:8)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이 되게 한다.

다섯째,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살도록 훈련한다. 예수님은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주셨다. 첫 번째 명령은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다. 그 동안 많은 교회들이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단기 선교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다. 그것은 ‘제자 삼는 사역’이다. 이것도 교회들이 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역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사명 중의 사명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역이다(마 28:18-20, 행 1:8).

제자 삼는 사역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다. 예수님은 병 고침과 추기 등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보다 중요하게 행하신 것이 바로 말씀사역이다. 말씀사역은 세 가지 형태(대중을 상대로 하는 설교, 12명 혹은 70인 등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제자 훈련, 일대일로 만나서 행하신 제자양육 등)로 나뉜다. 니고데모(요 3:1-21), 사마

리아 여인(요 4:1-26), 주님을 부인하는 실패 이후의 베드로(요 21:15-25), 귀신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가나안 여인(마 15:21-28), 간음하다 잡혀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던 여인(요 8:1-10), 여리고의 삭개오(19:1-10) 등은 예수님과 일대일로 만나 구원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발굴해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울 리더로 훈련하셨다.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행하도록 사명을 주셨다. 제자들은 배운 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행하였다. 만약 제자양육이 없었다면 복음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제자 삼는 사역은 모든 교회가 해야만 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특권이자 사명이다.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양육공동체였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훈련 받은 대로 제자 삼는 일을 교회사역의 중심에 두고 묵화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져 갔다(행 6:7). 그 결과 교인들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를 세워 갔다.

신앙생활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해야만 한다. 오늘날 교회들이 더 이상 훈련되지 못한 미성숙한 리더들에 의해 어려움을 겪거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원한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는 훈련되고 성숙한 리더를 필요로 한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양적 성장 시대를 지나 질적 성장을 요구하는 시대에 서 있다. 그 동안 한국 교회는 교인 수의 증가를 성장이라고 이해하고 수적 증가에 목회의 중점을 두고 수십 년을 달려왔다. 그 결과는 긍정적인 것도 많았지만 부정적인 것도 많았다.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다.

오늘날 교회 안과 밖에서는 교인다운 교인, 교회다운 교회를 요구하고 있다. 성숙한 교인,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히 5:11-14). 올해 일대일 제자양육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영성의 도구가 되길 소망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1월 13일 Sat 토요일

##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라

마 5:10~12, 빌 1:29

한정국 선교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작은예수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지만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다는 표현을 ‘책임’ 으로부터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는 축복과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선교적 책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인도네시아어를 9개월 동안 공부하고 나서 인도네시아의 한 대학교에 부임했습니다. 부족한 인도네시아어를 하면서 온몸이 땀범벅이 될 정

도로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안 되는 인도네시아어로 강의를 한다는 게 정말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런 저에 대해 궁금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열심히 강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저 교수는 도대체 누구일까? 선교사라고 하는데 왜 국제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가? 저에 대해 궁금해 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자의 기쁨이란 생명 되시고 구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기쁨도 날마다 강의실에 들어가는 고통이 없었다면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고난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

어가 16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기쁨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편지는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무슨 기쁨이 있었습니까? 이 기쁨은 예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그는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작은예수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각오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에 참여해야 합니다. 선교의 기쁨, 전도의 기쁨으로 인해 받는 핍박은 필수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15일 Mon 월요일

## 그분의 겸손하심처럼

빌 2:3~8

이재훈 목사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변화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중요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의 보증이 되시고, 다시 부활하

심으로 의로움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벧전 2:21). 보증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 사이 간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비결이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와의 살아있는 관계(연합)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

에 거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의 교만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수 없습니다. 교만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인정할 때 교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이식해주는 수술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식되었다면 생명을 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의

마음입니다. 두 가지 영역의 겸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서의 겸손’입니다. 모든 신성과 능력을 비우심으로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으로서의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으로서의 겸손’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모든 신성과 능력을 비우셨고,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바로 이 두가지 겸손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을 한없이 높이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겸손함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겸손이 우리의 겸손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삶의 출발입니다. 겸손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월 16일 Tue 화요일

## 그분의 용서하심처럼

골 3:13, 마 5:43~48

이재훈 목사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은 언제나 열매가 맺어집니다. 첫 번째 열매는 겸손이고, 두 번째 열매는 용서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보면 비난과 책임 전가와 미움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증거이고, 타락의 쓴 뿌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삶으로 회복 되면 용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처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에 깊이 머무를 때

비로소 내 안에 용서를 흘려보내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을까요. 그들 대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그 현장에서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변화되었습니다. 강도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백부장도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백부장은 “이 분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셨다”(눅 23:47)고 말했습니다. 백부장도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듣고, 그분의 신성과

의로우신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용서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린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의 용서를 구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용서가 흘러가면 자유롭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분의 용서하심처럼 용서를 흘려 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자유, 사랑, 관용, 정의, 평등, 차별 개념의 젠더주의적 왜곡



김명박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롱나비 상임대표  
송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동성애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동성애를 인권과 결부시킨다. 이들은 자신들이 성소수자로서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박해와 차별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점령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유엔의 보편인권 선언과 결부시켜 자신들의 주장을 인권차원에서 정당화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성찰해보면 동성애는 성적중독이며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들은 동성애가 성중독(性中毒)이라고 진실을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비난을 가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하여 법적인 차별을 받도록 하는 여차별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자유, 사랑, 관용, 정의, 평등, 차별 등 인권과 연계된 개념들이 젠더주의적으로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유 개념의 사유화, 자유방임적 무책임적 자유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전통적인 자유 개념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한다. 전통적 의미에서 자유란 외부적 강제 없이 양심에 따라 자기 행하는 자유를 행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자유는 어떤 군부 독재 시절 정치적으로 유신 헌법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 요구는 다수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시를 대변하는 미덕으로 간주되었다.

공산국가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의 중국 사회에서 정치적 자유 요구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면서 8년 감옥에 있었던 그에게 노벨 평화상이 수여되었다.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자유 요구는 사회적 다수가 가져야 할 공동체의 자유와 진리에 대한 양심의 소리와 책임감을 나타낸다. 사회적 다수들이 인정하는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공동선(共同善)에 기여하는 자유다.

이에 반하여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이러한 공동체에 기여하는 선과 책임에서 벗어난 주관적인 기분(subjective whim)을 주장한다. 이들은 자유에 따르는 책임은 말하지 않고 “당신이 하고 싶은대로 하라”는 자유방임(laissez-faire)만 주장한다. 개인적인 기분으로 환원된 자유 개념은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의 결과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러한 자유는 진리에 정통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인 욕망에 의하여 지배된다. 이들은 사람이 선천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



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태어남’이라는 선험적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다.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보편적인 성적 질서와 관련하여 명백한 진리(생물학적 남자와 여자로 태어남)를 거부하는 것이다.

독일의 반동성애 여성 운동가 가브리엘 쿠비(Gabriele Kuby)가 지적하는 것처럼 가족이란 마음속 감금함을 채워주는 공간이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 따른 신실한 사랑은 생명을 가져 온다.

동성애자들은 성욕을 충족하겠다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있다. 쿠비가 분석하는 것처럼 그 결과 한 생명을 잉태하는 책임감, 결혼 서약은 무시한 채 섹스 파티나 파트너가 남자인 여자는 동물이든 상관 없이 성욕을 해소하려 한다. 성적 자유를 앞세운 젠더 이데올로기가 법률적 강압을 통해 기독교 가치관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 최종 목표는 가정의 해체다. 쿠비가 우려하는 것처럼 이 같은 자유는 오히려 우리를 성적 쾌락의 노예로 만들며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성적 문란함은 인간 정체성의 파괴를 초래하고 사회의 성적 타락은 새로운 동성애 전체주의를 잉태한다. 이러한 자유, 진리와 선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난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의 자유 주장은 타자에 대한 회생을 요구함으로써 자신과 공동체가 누리는 자유의 축소를 초래한다.

한 개인의 동성애 행동은 그 가정이나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유발함으로써 그가 속한 공동체의 정서와 질서가 훼손된다. 17세기 영국 정치 철학자 홉스(Thomas Hobbes)의 말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야기된다. 이러한 사회는 정상적인 민주적이라고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

## 사랑 개념의 성적 탐닉화 이성적 관계가 동성적 관계로 변형

하나님은 인간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성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놀랍게도 뇌와 신체 구조 등에서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둘은 성(性)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고 훗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을 때 좋은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에서 이성애는 결혼과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생산하고, 인류의 존속을 가능하게 한다. 이성애는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서로 인격적으로 보완하도록 하여 참인간 존재에 이르도록 성숙하게 한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에게 천부적으로 심겨진 사랑의 본연질서이다.

동성애자들의 사랑 개념은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에로스적 사랑이기보다는 성적 탐닉(耽溺)으로 기울어진다. 그러므로 ‘동성애자의 사랑을 인정해야 한다’는 진보신학자들의 주장은 바르다고 볼 수 없다.

전문가들의 보고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사랑은 수백 명의 성관계 파트너와 함께 하는 문란한 성적 행동에 불과하며, 극단적 성욕을 추구하다보니 정신적·육체적 질병을 앓고 평균수명이 일반인보다 20년가량 짧고 자살률도 높다”고 한다.

2017년 6월 한국을 방문한 쿠비가 피력한 것처럼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사랑은 신실함, 헌신, 생명이라는 가정과 사랑의 소고한 가치를 절대 충족시키지 못한다. 동성애자들은 성욕 해소에 집착해 하나님께서 꾸리라고 하신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옳고 그들을 판단하고 내가 성을 결정한다”며 자신이 창조주 역할까지 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떠나 욕망의 노예로 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인간 존재를 무너뜨리는 행위일 뿐이다.

결혼이 갖고 있는 속성이란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으로 신성한 것이다. 건강한 가정은 자녀가 한 남성, 한 여성으로 성장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들을 건강하게 돌보는 데 있다. 부모와 자녀가 사랑의 관계에서 성장하는 자녀는 결혼 후 손주라는 생명을 부모님께 보어드림으로 행복감을 느낀다.

쿠비가 피력하는 바깥이 가족이란 마음속 감금함을 채워주는 공간이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신실한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생명을 가져온다. 이 같은 사랑은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가치다. 전통적 가정과 결혼을 지키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 관용 개념의 사유화, 관용이란 선과 악의 구분을 폐지

관용이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다른 견해와 태도에 대하여 참고 감수하는 것을 말한다. 관용이란 모든 것을 선이라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또한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불테르 등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이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 주로 절대 군주 통치자들에게 대하여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변호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이 관용을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폐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들에게 진리가 존재한다는 순수한 선언 자체는 불관용(intolerance)으로 간주된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관용이라는 진리를 가르쳤으나 비진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수는 십자가 사랑으로 모범을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관용이란 이러한 자기를 희생하는 그리스

도의 관용과는 거리가 멀다.

진정한 관용이란 비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관용이란 자기와 다른 생각과 신앙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고 다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짓과 비진리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이라 하여 죄 된 행위(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폭력, 마약 등)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양심이 강요되지 않으며 거짓이 묵인되지 않아야 한다.

예수는 선과 악을 구분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에 가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1-32). 그런데 이들은 진리를 박멸하고자 한다.

## 정의 개념의 왜곡, 정의란 소수자 요구 관철하는 것

정의란 권리와 의무의 정당한 주고받음을 통해서 개인이나 기관의 사회적 기본구조에 대한 관심의 균형을 말한다. 정의는 공평한 일은 공평하게, 불공평한 일은 불공평한 것으로 다루어, 모든 일이 공평하게 다루는 것이다. 불공평한 일이 공평한 것으로 취급된다면 그 결과는 불의(injustice)이다.

정의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모든 것을 각기에 따라서 대하라, 각자에게 해당하는 몫을 주라는 보편적인 법적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은 정상인들(대다수인 이성애자들)을 자신의 반역에 종속시키려는 비정상인들(성소수자인 동성애자들에 의하여 위협되고 있다.

극단한 페미니스트와 성소수자(LGBT) 행동가들에게 정의란 각 사람이 그의 젠더, 성적 정체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정의란 동성애자들인 게이(남성 동성애자), 레즈비언(여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이 결혼하고 생애기술(biotechnology)을 사용하여 그들의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올바른 정의가 아니라 성정치의 정의다. 이러한 성정치는 국가 권력이 성소수자의 요구를 강요하여 일반 성소수자들의 회생을 초래하는 것이다.

오늘날 게이 동성애자들이 걸리는 질병 에이즈(AIDS, 후천면역결핍증후군) 감염자의 1년 의료비는 3천 만 원이라고 추정하고 이들의 의료비는 3천억여, 이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한국에서는 에이즈 감염이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전체 감염인 중 남자가 92%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질병치료비 부담에 있어서 정상인들과는 달리 치료비 부담보다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불공평을 야기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불공평 즉, 객관적으로 다른 것(동성애)을 공평한 것(정상적인 것)으로 다루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우

리의 법체계가 세워진 정의 원칙의 도착(倒錯)이다.

## 평등 개념의 왜곡, 상대적 평등 무시 절대적 평등 요구

평등은 구성원들 가운데 일하는 기회의 균등과 일한 만큼 동일한 보수(報酬)가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등과 불평등을 결정하는 비교의 제3자이다. 비교의 제3자에 의해 두 대상이나 사람이 비교되어서 같은 점과 차이점이 결정된다.

결혼이란 두 파트너 사이의 이성(異性)적 끌림이 있어야 하며, 후손을 생산하여 가족을 만드는 능력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극단한 페미니스트와 성소수자(LGBT) 행동가들은 절대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 성소수자를 나타내는 영문 대문자(LGBT)는 레즈비언(Lesbian)과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LGBTAIQ라는 용어는 본래의 LGBT에서 무성애자(Asexual), 간성(間性)(Intersex), 아직 자신의 성정체성, 성적 지향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Questioner)을 더한 것이다.

인도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히즈라’를 히로 표기하여 포함하기도 한다. LGBTAIQOC는 위의 용어에 이성복장착용자(crossdresser)를 추가시킨 용어이다. 한국에서도 퀴어축제 등의 영향으로 최근 동성결혼 등 성적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범성애자(opensexual, pansexual)라고도 한다. 이들은 하숙방의 여성, 부엌의 남성, 갈비 속의 태아들의 이성(異性)에 따른 남자와 여자 사이의 실제적 평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적 평등 주장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생물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존재하는 성별(性別) 차이를 도외시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관계와 동성끼리의 성관계는 구별되어야 한다. 부부관계가 아닌 남성과 여성이 성평등 명목으로 같은 자리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남성끼리 그리고 여성끼리 성관계가 성평등이라고 할 수 없다. 동성간의 성관계가 부부 아닌 이성 간의 성관계처럼 평등하다고 말할 수 없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위례별초등학교 영아교사인 최 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소수자들의 축제 영상을 보여 주어 사회에 논란을 일으켰다. 최 교사의 지리 주변 칸막이엔 무지개색 깃발과 포스터 등이 빼곡히 붙어 있다. ‘남자는 다 짐승? 그렇다면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여성의 몸이 아닌 폭립입니다’는 글귀가 적힌 포스터도 있었다. 최 교사는 지난 5월부터 학교 내 ‘페미니즘 북클럽’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교감을 포함해 이 학교 교사 58명 중 21명이 가입했다. 최 교사와 함께 이 동아리 활동을 한 다른 교사들도 아이들을 상대로 성평등 교육에 나섰다고 알려졌다.

최 교사는 2017년 7월 17일 6학년 3개 반을 가르치면서 수업 시간 내내 자신이 서울 시청

광장에서 열린 퀴어(queer·성소수자) 축제(7월 15일)에 참여해 찍은 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관한 얘기를 했다. 최 교사의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부모에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남자끼리 뽀뽀하는 사진을 보여줬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영어 예문을 거의 she(여성 인칭 대명사)로 만들었다’, ‘선생님이 여자아이들만 예뻐하고, 남자아이들을 면박 준다’ 등의 말을 했다고 전해졌다.

한 학부모는 “최 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가 수업 시간에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서 “아이가 여자 인형끼리 결혼시키는 놀이를 하길래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최 교사가 개인 생활의 페미니즘 운동을 학생을 상대로 전파해서 어린이들이 너무 일찍 성소수자의 권리나 한쪽으로 치우친 성평등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성교육은 남자와 여자를 인정하지 않는 이데올로기적 성평등 교육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인정하는 양성평등 교육을 해야 한다.

## 차별 개념의 왜곡,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구별을 차별로 변질

차별 개념은 가치 체계를 변화시키는 싸움을 합법화하는데 열쇠 개념이다. 문명사회는 인종, 문화, 사회계급 등에서 발생해온 사회적 문화적 차별과 투쟁하여 오늘날 문명사회를 이룩하여 왔다. 예컨대 지난 20세기 초반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을 남성에게만 허용하고 여성에게는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남녀차별로서 오늘날에는 철폐되었고, 대학교육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직장의 경우에는 여성이 출산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직장 선택에 있어서 여성에게 차별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직도 우리 문화에는 남성 중심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화장실 시설의 경우 여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지하철 손잡이 등도 남성의 평균 키만을 고려해서 지하철 손잡이를 만든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개선되었다고 한다. 대중교통시설의 화장실도 남성 위주로 만들어서 여성들에게 사용이 불편하다. 각종 광고에 있어서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 등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성 차별이란 정당한 용어로서 사회적으로 잘못된 인식과 행동을 지적하는 용어이다.

그런데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인종에 기초한 역사적 차별로부터 집합적인 죄과를 가져와서 차별 개념을 동성애의 정당화를 관철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대상(이성애와 동성애) 사이를 차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성애자들과 동성애자들을 구별하지만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에 대한 어떤 불공평한 대우는 차

별로 분류한다. 그리하여 성적 행위가 개인과 사회의 공동선의 성공적인 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차별 개념은 성적 행위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를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구별을 차별로 간주하여 구별조차 못하도록 만든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성적 지향과는 관계없이 품위에 있어서 평등하다. 그러나 동성애 행위는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이성애자들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명예훼손(libel), 희롱(harassment), 추방(exclusion)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그의 품위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도덕적 원칙에 따른 정상적 공동생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discrimen’이란 구별(distinction) 내지는 차이(difference)에 대한 라틴어이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옳음과 그름, 선과 악 사이를 구별해야만 한다.

선과 악 사이의 구별이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우주의 질서이다. 그래서 인류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의식을 가져왔고, 양심은 이를 알고 있는 것이다.

젠더 이론은 가족파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자유, 사랑, 정의, 관용, 차별, 평등 개념으로 포장된 잘못된 젠더 이데올로기를 구별해 낼 줄 알아야 한다. 오늘날 젠더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정상적인 가치 언어(자유 사랑 관용 정의 평등 차별 등을 왜곡시키고 이러한 언어가 본래 지니는 용법을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로 변모시키고 있다.

오늘날 젠더 이데올로기가 획책하는 세계적 동성애 전체주의 운동에 대하여 성경적, 전통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이들의 왜곡된 사상에 감염되지 않고 바른 종교개혁적 정통사상에 입각한 신앙을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인권이란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결혼 제도, 입양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동성애를 비정상(異)으로 지적하고, 동성애를 치료하고, 그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동성애자를 위한 인권이다.

젠더 이론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종교 언론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 젠더 이론은 인간에 대한 거짓말로 시작된 이론으로 책임감도 없는 자유, 정의, 관용, 차별, 평등 등을 앞세워 동성애자들이 상상으로 내걸고 있는 ‘무지개’는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세신다는 것을 부정하고, 기독교 신앙을 모독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 자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맞서 각 국별로 저항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생명과 진리, 양심, 바른 성, 가정, 효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계속)

## 신년에 보면 좋은 영화 '위대한 쇼맨'



영화 '신과 함께'를 예매하려고 했는데 시간대가 맞지 않았다. 아쩔 수 없이 고른 영화가 '위대한 쇼맨'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 P.T 바넘은 '엑스맨'의 울버린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휴 잭맨이다. 그런데 영화 위대한 쇼맨에 나오는 그의 모습이 새로웠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점도 많다. 마치 익숙한 삶의 패턴과 역할에 굳어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또한 누군가와 삶을 이야기하고 노래하느냐에 따라 특별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의미 없는 삶을 걸어가는 무미건조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세워주신 자리가 있다. 그 자리는 내가 특별해지는 곳이 아니라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만남과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자리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지난해 이맘때 영화 '라라랜드'를 감동 있게 봤던 기억이 난다. 동일한 제작진이 올 해 더 깊고 감동적인 영화를 선사한 것이 바로 영화 위대한 쇼맨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더욱 가깝게 다가왔다.

영화 위대한 쇼맨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유혹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누군가는 이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진부하고, 단순한 전개로 그려졌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중간 중간에 펼쳐지는 아름답고 담백한 노래가 상황과 감정을 잘 표현해서 묘미를 더해 준다.

찬양을 드릴 때도 이와 유사한 모습이 있다. 찬양 자체만으로도 흘러가는 힘이 있는 곡들이 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곡들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전체 흐름을 크게 좌우하기도 한다. 그래서일까. 기존에 알고 있던 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 나오는 곡의 가사와

## 아낌없이 존중하고, 더욱 사랑하고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하모니가 내 가슴을 떨리게 했다. 음악을 좋아하고, 특히 뮤지컬 영화를 좋아하는 성도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한다. OST가 무려 10곡이나 있고, 모든 곡이 정말 훌륭하기 때문이다. 기회가 된다면 예배사역을 섬기는 성도님들도 감상해보면 좋겠다.

영화 위대한 쇼맨의 줄거리는 이렇다. P.T 바넘(휴 잭맨)은 양복집 아들로 태어나 굉장히 가난한 형편 속에서 자란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부모에게까지 팔수와 천대를 받는다. 하지만 사랑의 힘은 위대했다. 사랑하는 여인과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나갔다.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결국 결혼에까지 성공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인의 부모님은 그들에게 "얼마 가지 못해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 한다. 그럼에도 P.T 바넘은 귀엽고 어여쁜 딸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꿈만 같은 나날들을 보낸다.

그 행복도 잠시 P.T 바넘이 다니는 회사에 어려움이 닥쳐서 전 직원이 해고를 당하게 된다. 어려움을 겪는 주인공 P.T 바넘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도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직면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 길을 걸어갈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가장 좋은 시

기가 아닐까. 막다른 길에서 또 다른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아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포기란 없다. 연초부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억누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

실직한 P.T 바넘은 특별한 아이디어로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존재들을 찾아 나선다. 세상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등을 돌렸지만 P.T 바넘은 그들만의 특별함을 세상의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오도록 돕는다. 그들의 결단과 하나 됨을 통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펼쳐진다. 결국 그들은 한 가족이 된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같은 모습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또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해 주는 것이다. 아낌없이 존중하고, 더욱 사랑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가 세상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한다.



한영철 전도사  
(하모니공동체)

## 신년에 읽으면 좋은 책 <뜻밖의 손님>



<뜻밖의 손님>  
데이비드 짐머만 저, IVP, 8,000원

대형서점이 교회 가까이 있다는 것은 복이다. 얼마 전 잔잔한 오전시간에 한동안 방문하지 못했던 서점을 찾았다. 서고를 돌면서 책을 보던 중에 내가 좋아하는 'IVP 그림책 세트'가 눈에 들어왔다. IVP 그림책은 유·아동들이 읽는 그림책이 아니라 IVP 출간 도서 중에서 스테디셀러를 일러스트 작가가 그림으로 그려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다. 그가

운데 <뜻밖의 손님>이라는 새로운 책이 눈에 띄었다. 이 책의 부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문득 올해 하나님이 온누리교회에 허락하신 표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진짜 뜻밖의 손님처럼 말이다.

이 책 속의 뜻밖의 손님은 몇 페이지만 읽어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학적 내용을 담은 것도 아니고, 제목만으로도 스토리가 예상되는 얇은 책이어서 가볍게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한 페이지씩 넘겨가며 읽고 있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주인공 이야기에서 내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소녀는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방문에 당황한다. 그러나 예수님이기에 싫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그 소녀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할 뿐 자신의 가족이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의 방문이 반가우면서도 꺼려했던 것 같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셔서 구석구석 다니셨고, 마지못해 다니는 직장에도 함께 가셨다. 묻어두고 싶은 과거의 상처들을 들추고 만지셨기 때문이다. 심지어 노숙자 가족까지 집으로 초대하셨다. 소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뭐지? 어떻게 해야 하지?"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매우 분주하고 거침

## 가슴 터지는 사랑

없이 살아가는 동시에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와서 불편하기도 하고, 내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혹은 너무 대단한 삶을 요구할까봐 두렵기도 하다. 과연 우리는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을까?

"주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방문은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아파하는 과거는 묻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은 본인 뜻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소녀의 두려움, 꺼림칙함, 망설임과 상관없이 삶에 개입하신다.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사신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예수님은 소녀의 모든 영역과 일상, 이웃과 생각에 관심이 있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찾아왔지만 나중에는 소녀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삶을 바꾸신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무례하게 밀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초청할 수 없었던 나의 집으로 찾아오신 것이다.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방문을 두드리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랑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적당한 것이 아니라 주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가슴 터지는 사랑이다.

이 책의 저자 '데이비드 짐머만'은 우리의 일상 속에 머무는 예수님이 아니라 삶으로 찾

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동행하시고, 마침내 주인이 되시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책은 얇고 가볍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은 책이다. 올해 온누리교회에 허락하신 표어를 마음에 새기면서 가족들과 함께 읽고 나누면 좋겠다. 한 시간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예수님의 방문을 반갑게 맞이하고 싶은 이들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이 책을 읽고 나누면서 다시 한 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란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삶이 되기를 기원한다. 예수님께서 주인공 소녀에게 하신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넌 너무 오랫동안 홀로 살아왔다. 혼자 지내는 게 결코 너한테 좋지 않아. 혼자서는 이 공간을 제대로 꾸러 나갈 수가 없단다. 그건 내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확실히 알고 있었지. 그러니 한 가지 제안을 할까?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단다. 영원히. 이곳을 나의 본거지로 정하고 너랑 같이 사는 거지. 네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네 것이 되는 거야."



정현석 목사  
(대전 온누리교회)



차세대 주중프로그램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즐거운 놀이를 하고 있다.

## 서빙고 차세대 주중프로그램 모집

사이닝키즈, 파워키즈, 꿈아이놀이터, 예꿈뮤지컬

서빙고 온누리교회 차세대 예수님의꿈아이(예꿈, 18개월~7세)와 꿈이자리(꿈팡, 초등학생)에서 주중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사이닝키즈(예꿈, 꿈팡), 가스펠프로젝트(예꿈, 꿈팡), 파워키즈(꿈팡), 꿈아이놀이터(예꿈), 예꿈뮤지컬(예꿈)이다.

사이닝키즈는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아이들’을 목표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암송하는 말씀 암송학교이다. 꿈팡 사이닝키즈는 초등학생, 예꿈 사이닝키즈는 6~7세 어린이가 대상이다. 꿈팡 사이닝키즈는 3월 10일부터 5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신관 누리홀, 예꿈 사이닝키즈는 3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본관 2층 컴퓨터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꿈팡 사이닝키즈는 1월 26일까지, 예꿈 사이닝키즈는 2월 13일까지 하면 된다. 사전에 부모 인터뷰가 있다.

파워키즈는 워십댄스, 드라마, 풍

| 차세대 부서         | 주중프로그램          | 대상                          | 일정                                             |
|----------------|-----------------|-----------------------------|------------------------------------------------|
| 꿈팡<br>초등 1~6학년 | 사이닝키즈<br>말씀암송학교 | 초등학교 1~6학년<br>어린이와 부모 중 한 명 | 1학기: 3월 10일~5월 26일<br>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누리홀       |
|                | 파워키즈            | 초등학교 3~6학년                  | 3월~2019년 2월<br>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꿈아이홀              |
|                | 가스펠 프로젝트        | 초등학교 1~4학년<br>자녀와 부모        | 3월 17일~4월 28일 매주 토요일<br>오전 10시 비전홀, 꿈아이홀       |
| 예꿈<br>18개월~7세  | 사이닝키즈<br>말씀암송학교 | 유치부 6~7세<br>어린이와 부모 중 한 명   | 3월 3일~5월 19일 매주 토요일<br>오전 10시 본관 2층 컴퓨터        |
|                | 가스펠 프로젝트        | 유치부 6~7세                    | 3월 17일~4월 28일 매주 토요일<br>오전 10시 본관 지하2층 비전홀     |
|                | 꿈아이놀이터          | 22개월~38개월 영아                | 3월 21일~5월 23일 매주 수요일<br>오전 10시 40분 선교관 2층 꿈아이홀 |
|                | 예꿈 뮤지컬          | 유치부 7세                      | 3월~12월 매주 토요일<br>오전 10시 선교관 302호               |

물 등 하나님을 찬양하는 퍼포먼스 중심의 어린이 예배팀이다. 초등학교 3~6학년이 대상이다. 3월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공부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6세부터 초등학교 4학년 자녀와 부모이다. 3월 17일부터 7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과 꿈아이홀에서 진행된다. 예꿈은 3월 4일까지, 꿈팡은 3월 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예꿈 꿈아이놀이터는 22개월부터

38개월 영유아가 부모와 함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자유놀이를 통해 말씀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3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예꿈 뮤지컬은 뮤지컬을 통해 예배의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통해 감사의 고백이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7세 어린이가 대상이다.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선교관 302호에서 열린다. 신청은 2월 11일까지이다. 문의: 02-3215-3521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희망학교 짓기’ 캠페인

NGO 더멋진세상, 남수단 난민돕기 후원행사

NGO 더멋진세상이 3월 31일까지 우간다 남수단 난민들을 위한 ‘희망학교 짓기’ 캠페인을 벌인다. 희망학교 짓기 캠페인은 아프리카 우간다 북부 남수단 난민촌 부드리 마을에 학교를 짓는데 벽돌 100장(2만원)과 학용품 세트(개당 2만 원)를 후원하는 행사다.

난민촌에는 우간다 내전을 피해 국경을 넘은 8천여 명의 남수단 난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그중에서 차

세대가 1,900명 정도인데 학교 건물이 없어서 NGO 더멋진세상이 지원한 천막에서 공부하고 있다.

‘희망의 학교 짓기’ 캠페인에는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 계좌이체, 네이버 기부포털 해피빈을 이용해서 참여할 수 있다.

계좌: 하나은행 573-910009-09905

예금주: 더멋진세상

문의: 02-2271-2248

## 일.하.세. 세미나 개최

2월 10일 오전 9시 푸른숲상담센터

‘일.하.세.(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사역팀이 2월 10일 오전 9시 서초동 푸른숲상담센터에서 ‘일터사역의 이해와 실천’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상은 일.하.세. 아카데미 운영위원, 강사, 예비 강사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방선기 목사

(직장사역연합 대표)가 강의한다.

사회선교부 소속 일.하.세. 사역팀은 2016년 1월 창설됐다. 일터에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지키고, 영성을 회복하고, 일터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비전이자 목표다.

##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EHS) 세미나

서빙고 3월 17일, 양재 3월 25일 개강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EHS)세미나가 열린다. 서빙고는 3월 17일부터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선교관 401호, 양재는 3월 25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4시 30분 도곡교육관 온누리홀에서 진행된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세미나에서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영성의 문제’, ‘당신 자신을 앞으로 하나님을 알라’, ‘슬픔과 상실을 통

해 당신의 영혼을 확장하라’,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의 성장’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강의는 서빙고 이기훈 목사, 양재 오민, 최용준 목사가 한다.

건강한 영성세미나는 피터 스카지로 목사가 개발한 ‘영성과 건강한 정서의 통합’에 초점을 둔 신앙훈련 프로그램이다.

문의: 02-3215-3532

##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자립교회 차세대 40여 명 온누리교회 방문

지난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라북도 남원, 임실, 순창 지역 미자립교회 차세대 40여 명이 서빙고 농어촌선교회의 초청으로 온누리교회를 방문했다. 이날 미자립교회 차세대들은 평소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을 했다. 국회의사당, 롯데월드

등을 방문하고, 온누리교회에서 창조과학 특강을 듣고, 주일예배도 드렸다. 강수정 집사(인풍성은교회)는 “미자립교회 차세대들이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온누리교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서빙고 상담센터  
수련상담사 모집

서빙고 상담센터에서 1월 31일까지 수련상담사를 모집한다. 상담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가 대상이다.

문의: 02-793-2998

양재, 아침운동 동우회  
회원 모집

양재 온누리교회 아침운동 동우회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전문강사와 함께 몸을 단련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10-2745-2302

## 새가족 만남의 잔치

| 〈서빙고〉 일사: 1월 28일(주일) 오후 5시~7시(식사제공) |     |      |       |      | 〈양재〉 일사: 1월 28일(주일) 오후 3시 30분         |     |      |     |      |
|-------------------------------------|-----|------|-------|------|---------------------------------------|-----|------|-----|------|
| 장소: 서빙고 선교관 지하2층 시온홀(B2)            |     |      |       |      | 장소: 양재 드림홀                            |     |      |     |      |
| 대상: 2017년 11월 5일~2018년 1월 11일까지 수료자 |     |      |       |      | 대상: 2017년 11월 5일~2018년 1월 13일까지 등록 성도 |     |      |     |      |
| 〈서빙고〉                               | 동작  | 성동광진 | 양천    | 일산   | 박양선                                   | 이승민 | 임 레  | 김정미 | 김연진  |
| 가정사역                                | 김현정 | 배지혜  | 김종순   | 이혜경  | 박재호                                   | 이혜진 | 한창희  | 박경희 | 김혜숙  |
| 김명환                                 | 지성찬 | 신경원  |       | 조병관  | 이숙영                                   | 장수진 |      |     | 송지영  |
| 박정미                                 |     | 윤석주  | 여의도   | 한규중  | 임희은                                   | 황혜정 | 분당A  | 서초C | 안종현  |
|                                     | 마포  | 원태희  | 김상열   |      | 정지윤                                   |     | 김병철  | 서현지 | 이광선  |
| 강서                                  | 권순남 | 이상명  | 서영록   | 중종로  | 채은실                                   | 강남C | 이기춘  |     | 정순일  |
| 이지영                                 | 이동희 | 이수아  |       | 권민성  | 홍재욱                                   | 김성진 | 이지은  | 서초D | 최경애  |
|                                     | 이선화 | 홍미정  | 영등포구로 | 김성일  |                                       | 문윤수 | 정은경  | 권정윤 | 표경철  |
| 고양은평                                | 장미선 |      | 김애순   | 박성연  | 〈양재〉                                  | 박영숙 | 최문선  | 김지산 | 함혜원  |
| 조형준                                 | 정재희 | 성북   |       | 백경희  | 강남A                                   | 성정화 |      |     |      |
|                                     | 정집설 | 김병현  | 용산    | 안정자  | 강은숙                                   | 손정민 | 분당B  | 송파  | 푸른누리 |
| 관악금천                                | 차혜인 | 최옥요  | 강지형   | 이수정  | 김형준                                   | 신유경 | 권춘자  | 권민정 | 강신욱  |
| SHU MAN -                           | 최아사 | 황은숙  | 김소연   | 이영숙  | 서주연                                   | 이경옥 | 이강훈  | 김석담 | 김성경  |
| MOHAMMAD                            |     |      | 변설희   | 한재홍  | 엄금순                                   | 정단일 | 이혜원  | 김희숙 | 노누리  |
| 김명철                                 | 북누리 | 신용산  | 이규진   | 찬양사역 | 오동석                                   |     | 전지원  | 류석우 | 노희승  |
| 박규민                                 | 김인숙 | 박해정  | 이진호   | 유현식  | 이윤정                                   | 강남D | 제진산  | 이경희 | 문정희  |
| 안성연                                 |     | 배예란  |       |      | 이지수                                   | 서원석 |      | 이지연 | 박두원  |
| 임승은                                 | 서대문 | 성기원  | 이촌    | S브릿지 | 강남B                                   | 임슬아 | 서초A  | 임은택 | 장은경  |
| 최정민                                 | 김석화 | 신명숙  | 이광택   | 김규남  | 계환원                                   |     | 김보영  |     | 지재우  |
|                                     |     | 이승현  | 이재욱   | 김석태  | 남미애                                   | 경기A | 남궁은경 | 양재  | 최철현  |
| 동대문중앙                               | 서빙고 | 이지혜  |       | 김세호  | 박애경                                   | 김경애 | 서초B  | 고운영 |      |
| 김재범                                 | 김승연 | 황성훈  |       | 나숙현  | 윤석건                                   | 이혜진 | 김종률  | 권귀복 |      |

## ■ 재능기부 감사 편지



/ 뵈뵈 선교사(동아시아 A국)

동아시아 A국에서는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종종 가족사진을 보여 달라고 한다. 그때마다 우리는 핸드폰에 저장해 둔 사진 몇 장을 보여주곤 했다. 결혼 10년 차인 우리 부부는 만남에서 결혼까지 3년이 걸렸지만 정작 여덟 번 밖에 만나지 못해서 둘이 찍은 사진이 거의 없다. 결혼 직후 선교지로 떠날 계획이어서 무거운 앨범이나 액자 같은 거추장스러운 이삿짐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사역 하느라 사진을 찍기보다는 찍어주기 바빠서 ‘가족사진은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찍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잘 찍지 않았다. 그러니 가족사진을 보여 달라는 현지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난감했다. 동아시아 A국 사람들은 벽에 가족사진을 넣은 큰 액자를 걸어 두는데, 집에 온 손님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진 속 가족들을 소개한다. 그 집에 처음 간 손님이라도 사진 몇 장에 얹힌 가족들의 역사를 듣고 나면 몇 년은 알고 지낸 것처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된다. 그래서 우리 집에 찾아 온 현지인들에게 보여 줄 가족사진이 없다는 것이 항상 아쉬웠다. 그런데 양상훈 형제의 귀한 재능기부로 드디어 우리에게도 예쁜 가족사진이 생겼다. 본국

사역 기간 동안 재능기부를 통해 가족사진 촬영을 한다는 광고를 보고 신청했는데 사실 재능기부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다. 사진 몇 장 찍는 것에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 반나절 동안 약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색한 표정과 긴장을 풀어 주며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양상훈 형제를 보면서 말로 표현 못할 감동을 받았다. 양상훈 형제의 수고와 섬김으로 우리 부부도 동아시아 A국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완성되었다. 우리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하신 일들을 전하는 것은 언제나 새롭고 놀라운 역사이다.

재능기부는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봉사가 아니라 선교사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사역이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사용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체감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를 것이다. 나에게만 있는 재능을 더욱 위대한 일을 위해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다. 지친 선교사님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신 양상훈 형제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 ■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수료 간증



/ 송영근, 최정금 부부(TIM 선교사)

중국에서 소수민족을 5년 동안 섬기다가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왔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선교단체 장로님께서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프로그램에 참석해보라고 권유하셨다. 처음에는 부부코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참석했다. 단순히 부부사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훈련받는 곳인 줄 알았다.

이것저것 적으라고 할 때도 하나의 과정으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질문지에 ‘이상적인 가정관’을 적으라는 칸이 있었다. 나는 그동안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너무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목사로서 묵회 잘 하고 설교 잘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곧 아내의 기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동행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하고 있는 나에게는 불필요한 프로그램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프로그램에 계속 참석하면서부터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조금씩 깨달았다. 조별 나눔을 통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아내 눈치를 보게 되었다. 아름다운 동행 수업이 있는 토요일만 기다리게 되었다.

##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

25년을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아내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았다.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왔다. 나는 남편으로서 가족들 밥만 굶기고, 가정에 큰 일 없이 평안하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가끔 아내와 다투면 남편의 개성이 달라서 싸운다고만 생각했다. 아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 당신 고발할거야”라고 했던 말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코칭 수업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너무 잘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내도 나와 같이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나는 아내에게 사모 역할만 강조했지 여자로서 대우하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날 이후 집에서 아내와 대화하기 시작했고, 아내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신기한 것은 많은 것을 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무척이나 기뻐했다.

우리 부부는 완벽하지 못하다. 실수를 거듭한다. 하지만 알콩달콩 잘 싸우는 법을 터득해 나가고 있다. 들어주는 것, 함께 하는 것, 대화하는 것, 싸우는 것 모두가 훈련이다. 이 훈련을 잘 하고 싶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

## ■ 대학청년부 ‘원터캠프’ 참가자 간증



/ 김예린 어린이(11세, 인천동산교회 동산비전센터)

## 가장 행복한 선물

원터캠프는 가장 행복한 선물이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많은 활동 중에서도 롯데타워에서 전망을 본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처음 경험한 세족식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고 감동 그 자체였다. 가수가 와서 찬양을 하고, 꿈도 꾸지 못했던 호텔에서 잠도 자고, 맛있는 갈비도 먹고, 롯데월드도 갔다. 무엇보다 정말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나와 친구들만 기쁜 것이 아니었다. 부모님들도 기뻐하셨다. 도움을 주신 온누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롯데타워와 롯데월드는 그동안 너무 비싸서 가지 못했는데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엄마랑 여행가면 맨날 싸웠는데 이번에는 1박2일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다. 그래서 더욱 좋고, 더욱 즐거웠다.

원터캠프 둘째 날도 감사의 연속이었다. 아

침 일찍 일정을 소화하러 출발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늦게 출발해서 좋았다. 호텔에서 더 오래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매순간이 꿈만 같았고 감동이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이어서 뜻 깊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원터캠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웠다. 평소에는 기도할 때 나와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했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우리를 정성껏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매순간 우리를 생각해주시고, 헌신해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도 선생님들처럼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참석할 것이다. 원터캠프는 정말 잊지 못할 것 같다. 가장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주신 하나님과 온누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 예수제자학교(JDS) 수료 간증



/ 장대웅 성도(서빙고 저녁반 수료)

나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했고, 여러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훈련받고 돌아오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섬기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억눌려있었다. 그때 지인의 권유로 온누리교회 예수제자학교(JDS)에 참가하게 되었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다. ‘다른 훈련과 똑 같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신기하게 훈련 시작 두 달 만에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다. 몸에 밴 큐티와 기도훈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게 하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다. 큐티묵상 내용을 매일같이 조원들과 나누면서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동안 여러 훈련을 받았지만 정작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매번 옛사람으로 돌아갔던 것이었다. 그런데 예수제자학교는 달랐다. ‘진짜 바뀌는구나’를 체험했다. 조원들과의 나눔을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돌아보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고 기쁨이었다.

예수제자학교 훈련을 받으면서 봉사하는

## 무서운 하나님에서 신실한 하나님으로

기쁨도 생겼다. 나의 신앙생활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혀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 강의와 나눔을 통해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곡해하던 쓴 뿌리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기쁨도 누렸다. 무서운 하나님에서 신실하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긴 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걱정했었다. 그러나 지각 한 번 없이 과정을 마쳤다.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이었다. 예수제자학교 강의는 나에게 행복한 예배 그 자체였다. 구원의 첫사랑을 찾아주었고, 신앙의 기초를 재정립 해주었다.

시간만 나면 예수제자학교를 자랑하고 있다. 예수제자학교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다. 더 많은 이들이 예수제자학교에 와서 신앙의 기쁨을 되찾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까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JDS 문의: 02-3215-3533

## 장로칼럼

### 60년 만에 불러낸 추억



정강무 장로  
(분당B공동체)

지난해 성탄절의 감동을 되새기고 그 감동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 글을 쓴다. 분당B공동체 아곶다락방은 몇 년 전부터 양재 농어촌선교회에서 연결해 준 추곡전원교회(임기수 담임목사)를 섬기고 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추곡전원교회는 출석교인이 20여 명인 작은 시골교회이다. 임기수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인들을 정성으로 섬기고 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는다. 분당B공동체 아곶다락방은 지난해 성탄절을 그분들과 함께 보냈다. 당시 눈이 많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서 원래 참여하려던 성도들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했다. 그래도 추곡전원교회로 가는 설렘은 조금도 모자라지 않았다. 전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하고, 성탄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오심을 찬양했다. 예배만 함께 드린 것이 아니다. 마을을 돌면서 성탄송도 불렀다. 해가 짧아 그런지 짙게 깔린 어둠과, 강원도 특유의 강추위와 눈 쌓인 미끄러운 시골길이 우리의 발걸음을 사로잡았지만 주민들께 주님 나신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탄송을 부르고 작은 선물을 나눠드렸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도 했다. “추곡전원교회에서 뵈겠습니다”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렇게 큰소리

로 인사하고, 노래 부르면서 성탄을 축하했다. 처음에는 문 여는 것을 꺼리던 주민들도 나와서 감사인사를 하고 함께 기뻐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송을 부른 게 60년 만이었다. 옛날 생각이 났다. 중학생 때 멋모르고 내 고향 목포에서 선배들을 따라 다니며 새벽송을 불렀던 추억이 생각나서 눈물이 났다. 더불어 지난 세월 동안의 내 신앙을 반추해 보았다.

1984년 억지로 이끌려 시작하게 된 성경공부를 시작으로 세례 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생각하는데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교차했다.

2년 전에는 주민들께 영양주사를 놔드렸는데 그때 매놓은 줄을 치우지 않고 우리가 또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사모님의 말씀과 우리를 만나려고 미끄러운 산길을 간신히 내려오셨다는 80세 할머니의 손을 잡으면서 조그마한 섬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저런 사유로 미루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불편한 몸으로 예배드리러 오신 어르신들과 어린이 성도들을 일일이 집에 데려다주시는 임 목사님의 섬김을 잊지 못할 것이다. 너무 고맙다고 인사해 주신 주민들도 잊지 않는다.

새해에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추곡전원교회 예배당이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린다.

## 권사칼럼

### 화해자, 중보자, 위로자



김지선 권사  
(서빙고공동체)

몇 년 전 성지순례를 다녀온 이후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이스라엘에 대해 더 알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로비에서 IBS(Israel Bible Study)를 홍보하고 계신 김혜영 권사님을 만났다. 김 권사님은 내게 IBS에 대해 소개하시며 꼭 한번 들어보라고 권하셨다.

IBS 첫 번째 시간은 ‘히년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의였다. 그 강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히년법이 복음의 원리와 목적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의 놀라움은 첫 시간 강의뿐만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에 대해 배우면 배우수록 더 해졌다. 성경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는 기쁨은 덤이었다.

나는 이미 복음이 좋은 소식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IBS 강의를 들으면서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지를 조금 더 정확하고 폭넓게 깨닫게 되었다. 복음이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라는 감사기도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왔다.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계 10:10)이라는 말씀을 몸소 체험했다. 성경에 대해 잘 모르던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더 많은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IBS 7주 강의 동안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축복이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고, 로마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확증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롬 11:25~27).

이스라엘이 실족함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으로서(신 7:6~7)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속적 국가가 되어 다른 민족을 위해 제물로 버려진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열방들에게 제사장으로서 부름 받았고, 자신의 국가적 생명을 넘겨주어 하늘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로부터 나와서 열방의 토양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하였다. 홀로코스트와 세계적인 반유대주의라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하셨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당한 것을 갚아 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요엘 3:20~21).

IBS 과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기회였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화해자, 중보자, 위로자 역할을 해야 한다. 나도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다.

## 청년칼럼



공인원 성도  
(갈렙공동체)

창신동 쪽방촌에서 생일잔치를 시작한 지 10여 년이 넘었다. 지금도 매월 셋째 주에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하고 있다. 내가 처음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했을 때가 기억난다.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무심코 따라 갔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쪽방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건강은 괜찮으신지, 생활은 불편하지 않으신지 걱정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았다. 그때부터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때마침 매월 창신동 쪽방촌에서 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작은 일이지



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처음 댁은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상대방의 삶을 오롯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자칫하면 그분들을 동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적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들이 나를 대하는 표정과 태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

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매월 생신을 맞이하신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따뜻한 밥과 미역국, 몇 가지 반찬과 생일케이크를 나누며 생일잔치를 해드리고 있다. 어르신들은 식사하시면서 “참 맛있네”, “한 그릇 더 줘”, “생일 미역국은 평생 처음 먹어 보네”라고 말씀 하신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많은 생각이 든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수고가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

다. 우리는 잠깐 와서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드릴 뿐인데 어르신들이 어린 아이처럼 좋아해 주시고 감사함을 표현해 주신다. 나는 어르신들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작년에 왔었지?”, “나 기억하지”라고 말씀하신다. 늘 살갑게 대해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보상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진다.

누구나 어려워질 수 있고,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마음을 쏟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이러스처럼 전염되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기를 기도한다. 늘 자식처럼 맞아주시고, 좋은 것을 줘서 고맙다고 표현해주시는 창신동 어르신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지금처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의 삶에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 사랑의 손길 바이러스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도 하라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3:30 본관 5층 미션다락방

**안산M센터**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Peace 302 / 다문화 애꿈 주일  
10:30 B105 / 인도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 열방예배 주일 9:00 301 / 네팔  
어 주일 9:00 302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병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툼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스페인어 기도모임**

인도: Ps. Cristian Neira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관 B102호  
문의: 010-4924-2703 \*통역 지원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묘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궁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꿈아이놀이터(꿈터) 30기 모집**

대상: 22~38개월  
기간: 3월 21일~5월 23일  
시간: 수요일 오전 10:40~오후 12:40  
신청: 3월 11일까지  
문의: 김경희 코치(010-8877-3584)

**꿈터 교사 모집**

분야: 음향, 세팅, 찬양, 데코, 반주, 소그룹,  
자료 제작 등  
문의: 김혜영 전도사(010-3174-8107)

**온누리남성성교합창단 단원 모집**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을  
준비: 찬송가 1곡(자유곡)  
문의: 신용환 총무(010-8695-8341)  
합창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ommckr) 참조바랍니다.

**온누리선교재단 직원 채용공고**

모집: 서빙고 보안관리팀  
자격: 세례교인, 경력무관(동종업계 경력자  
우대), 인근거주자 우대  
접수: ohddong5@onnuri.org(총무인사팀  
장 오종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문의: 오종한(02-3215-3101, 010-5100-  
6847)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문환 팀장(010-5157-200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심방전도 요청을 받음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  
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월 19:30 양재 JDS홀

문의: 장형식 총무(011-515-6174)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아침운동 동우회 회원 모집**

내용: 전문 강사와 스트레칭과 온몸 단련  
시간: 월-금 오전 7시 20분~50분  
장소: 지하식당 옆 비전 2홀에서  
문의: 최순영 집사(010-2745-2302)

**한마음 회복예배 찬양인도, 반주자**

**모집**

일시: 주일 11시 20분

장소: 양재 캠퍼스 강의동 304호

내용: 찬양인도와 반주자 모집

문의: 한마음 예배 팀장 010-3789-3582

02-570-7445

**\*게시판 광고마감목요일오후4시**

**부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 오전7:00/2부 오전9:00/3부 오전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4:00(대청예배)/6부 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수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  
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  
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전**

042.825.3642

**주일예배**



‘그리스도 안에서 더 멀리 더 가까이’ 말씀과 함께 하는 CGNTV

# 나침반 바이블

BIBLE

깊이 있는 성경 강의를 통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봅니다

## 구약 <신명기> ‘신앙의 원칙과 규범’

방송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강사 : 한동구 교수  
(평택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구약학교수)



## 신약 <사도행전> ‘성령의 이끄심과 십자가 제자도’

방송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강사 : 안용성 목사  
(그루터기 교회)



## CGNTV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홈페이지 :  
[www.cgntv.net](http://www.cgntv.net)

국세청 :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전화문의 :  
후원관리팀 02-796-2243

\* CGNTV기부금내역  
→ (재)온누리선교재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20분 ‘나침반 바이블’ BEST 방송